

큰스님 수행한담

좋은 인연 만드는 길



1954년 9월 29일에 있는 전국비구승대회 기념사진. 아랫줄 오른쪽 세번째부터 함곡, 금오, 효봉, 해암, 동산스님 등이 보인다. 범행스님(세번째 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은 '이 사진에 있는 스님들이 한국불교 평화운동의 주역이다'고 말했다.

지만 어렵더군요. 얼굴도 안 변하고 병어리 흉내를 내는 것이 목연정진보다 수십 배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스님에게서 '탁발(托鉢)'은 저렇게 하는구나'를 배웠지요. 6.25전쟁 때는 거지 생활을 곱잡 했습니다. 여름에는 남산에, 겨울에는 한강변에 공집을 지어놓고 거지 생활을 했어요. 숯단지를 걸어놓고 강물에 담은 음식을 고두 넣고 끓여요. 그러면 병도 안 생기고 참 맛있어요. 나는 부자집에 태어나 잘 먹고 호강하며 지냈지만 강릉에 든 밥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어요. '일체유심조'라는 진리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오스님은 늘 나보고 참선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당시 주력수행에 몰두하던 터라 참선이 잘 되지 않았어요. 몇년 뒤에는 마곡사 토굴에서 정진했는데 주력을 통해 삼매나 정(定)에 드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참선을 할 때 화두를 참구하듯이 항상 의우면서 수행의 요체로 삼았지요. 마곡사 토굴에서 1년정도 지냈는데 느낌이 이상해 내려가 보니 정화운동이 시작되었어요. 봉은사 주지 등을 맡으며 정화운동에 참여했어요. 당시 선학원에는 경지가 높은 쟁쟁한 스님들이 많아서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 다. 동산스님은 복이 많은 분이었고, 효봉스님은 덕이 많은 분이었어요. 금오스

“화두는 경전 다 읽은 후 드세요 50년 수행통해 얻은 결론 ‘절대성이 없다’입니다”

《반야심경》에 대해 물으며 '부처 불(佛) 자 보다 더한 곳이 있으니 일러라' 하셨는데, 나는 답을 못했어요. 그로부터 '내가 안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력수행만 해서는 안되겠다' 느꼈지요. 그때부터 참선수행에 본격적으로 몰두했는데 《반야심경》의 이치를 깨칠 수 있었어요. '마음이 곧 부처(心則佛)'임을 확신하게 된 것이예요. 해암스님은 《반야심경》에 대한 나의 답변이 옳음을 인가하고 '효일(曉日)'이란 호와 전법계를 내리셨어요. 은산철벽이 터지면 화두가 술술 풀려요. 경전과 선어록을 봐도 모르던 부분이 저절로 환하게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별 것 아닌 것이 수행자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오도의 세계' 첫 관문을 통과한 뒤에는 '놓고 쉬는' 공부를 해야 해요. '내가 깨쳤네, 내가 큰 스님인데' 하는 상을 일체 버려야 해요. 참선이란 것은 본디 내 마음자리를 바로 보는 거예요. 거울의 때를 벗기면 자기 얼굴이 환하게 보이듯이 본래 나란

50여년의 수행으로 얻은 결론은 '절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마거사의 불이 법문(不二法門)과도 같은 것이죠. 선악과 생사 등 모든 가치는 둘이 아니요, 그 어떠한 것도 절대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상대성원리를 발표했지만 불법은 정진과 물질, 모든 것이 절대성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보는 선악 등 온갖 분별이 절대성을 갖지 못해요.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에 처했다고 탓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예요.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쌓여서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지요. 누구의 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오욕락이 쌓이고 탐진치가 모여 벌어진 일이지요. 업력으로 주고 받는 것이기에 연기론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착하게 인욕과 보시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온갖 나쁜 일 저지르지 말고, 모든 착한 일을 두루 행하라.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는 일곱 부처님의 공통적인 계율, 즉 칠보통계(七佛通戒)가 불법 수행의 요체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화 당시 효봉스님의 사제인 함봉스님이 조계사 법당 안에서 모 스님과 서로 주지를 안 띠겠다고 싸워 재판에 회부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젠가에도 청정 비구의 무소유 정신의 상징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이것이 발단이 되어 정부쪽에서도 비구축의 손을 들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화가 끝나고 40년도 안 되었지만 당시의 청정 비구의 서슬퍼런 지계의지가 많이 희석되고 약화되었습니까. 무소유 정신도 약해지고 호사스런 생활로 불자들의 비판을 받는 스님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선각들의 훌륭한 전통은 잊어버리고 불교가 형식화 되어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수행의 전통을 되살려야만 우리 사회를 이끄는 정신의 고향으로 불교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불자들은 '참 자기'를 찾는 일대사에 전력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기자 (jkgam@buddhopia.com)

“은산철벽 터지면 놓고 쉬는 공부해야” ‘안다고 하는 그 생각’마저 버릴때 자유

그런데 묘한 것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없는 살림에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자는 인색한 것으로 부자가 되는가 보다' 했지요. 탁발은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독소인 이만과 아집을 없애고, 보시하는 이의 복덕을 길러주는 공덕이 있음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3년경에는 서울 선학원에서 당시 조실로 계시던 금오스님을 은사로 모시게 되었어요. 당시 만암스님이 종장으로 계시면서 수행승(비구)과 교화승(대처)의 거주 사찰 지정문제도 종단내의 의견 대립이 심각했습니다. 이해 8월 선학원에서 열린 제1차 수좌대회가 파한 뒤 효봉, 동산스님 등과 함께 정화의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지요.

남은 당시에는 보기 드물게 동진출가한 청정 비구이었죠.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화두는 어떻게 드느냐 하면 일체 경전을 다 본 후에 의심을 내라는 등의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던 중 1968년 10월8일에 금오스님이 세수 73세로 입적하셨어요. 이후에는 선학원 이사장으로 계시던 해암스님을 모시고 공부를 했어요. 해암스님은 어디서나 설법하여 사람들을 교화하셨어요. 70세가 넘도록 매일 새벽 108배의 참회예불을 중단하지 않으셨죠. 특히 신도나 청소년을 대할 때마다 신의와 효도를 강조하여 도의(道義)재건운동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해암스님 역시 나를 참선으로 이끌기 위해 애를 쓰셨어요. 하루는 스님께서

남는 거예요. 그 경계에 들어서면 춤도 춘다고 하지만, 그때부터가 중요해요. '안다고 하는 그 생각'마저 버려야 해요. 백양사의 서용스님처럼 무심도인(無心道人)이 되어야 해요. 참도인은 어린애처럼 즐거울 뿐 아무런 상이 없는 거예요. 보림(保任·保護仁持)의 준말로 깨달은 이가 그 경지를 잘 보호해 지켜가는 것'이란 게 판 계 아니예요. 수억겁 동안 쌓인 습을 지워내는 작업이예요. 미세한 식·색·명·리(食色名利)·잡 등 오욕락을 제거하는 것이지요. 죽을 때까지 쉬지 않아야 해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르게 되면 성육이 발동하고, 권력을 잡으면 재물을 모으려 해요. 그래서 밥을 적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요.



수호국계주다라니경



김영덕 위덕대 교수·불교학

우리나라 곳곳에서 살기 어렵다는 말이 너무 자주 나온다. 사회는 온통 어려운 사람 천지라고, 넘쳐나는 실업자라고 사회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가히 국난(國難)이다. 우리에게 이 어려움은 미증유의 것이었던가, 아니다. 우리 민족에게 IMF와 이전의 잠깐동안의 번영이 미증유의 것이었을 뿐이다. 우리의 반만년 역사는 가난과 배고픔으로 일관된 역사였다. 현재 40대 이전 사람들은 누구나 배고팠던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절에 굶는 사람이 있었어도 이렇게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지는 않았다. 우리는 지금 번영 후에 오는 피폐가 더 참담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는 중이다. 이 국난이 야겨쓰는 것만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겠는가.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문제이다.

없는 것이다.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는 금강성만다라(金剛城曼荼羅)가 등장하며 이 만다라는 바로 금강계만다라를 말한다. 이 경은 당나라 때 인도에서 온 승려인 반야(般若)와 모니실리(牟尼室利)가 자사사(慈惠寺)에서 공동으로 번역한 경으로 전해진다. 이 경은 금강성만다라와 더불어 특징있는 호국사상을 살려 유명하다.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의거하여 진호국가(鎮護國家)를 위해 닦는 수호경법(守護經法)은 인왕경법(仁王經法) 공작경법(孔雀經法)과 함께 3대법이다. 《수호국계주다라니경》의 호국사상은 정법을 호종하여 백성들을 좋은 정치로 잘 다스리면 국위가 선양되어 인민이 안락하여 국제(國界)가 태평하고 국권(國權)이 튼튼하여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왕과 백성은 모두 정법을 신수봉행할

국난극복과 위민의 지혜 밝힌 경전 “정법 신수봉행 태평성대 국위선양”

철학의 문제이다. 이 시대에 불교가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흔들리는 국민의 가치관을 굳게 잡아주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배고픈 자에게 밥을, 재물이 없는 자에게 재물을 주는 보시행위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나, 더 근원적인 도움은 가진 것이 없어도 여유로울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일이다. 어려운 시절을 만나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튼튼한 마음의 울타리를 생각한다. 그 울타리는 나와 남을 분별하고 차별시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본래 청정한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로서의 울타리이다. 그 울타리가 금강성(金剛城)으로 이루어졌다면 그야말로 금강성(金剛城)으로 보호되는 절대영역이 된다. 금강성을 구축하는 금강의 재료가 무엇인데 절대공간의 될 수 있겠는가. 금강은 절대공성의 일체를 상징하며 이 절대공성은 일체를 부수고 일체를 성립케한다. 한시절의 부귀영화가 인연따라 이루어진 공한 것이며, 또한 빈곤과 고통도 그 본래의 고정된 성품이 없으므로 언제까지 그 고통에 억눌려 지낼 필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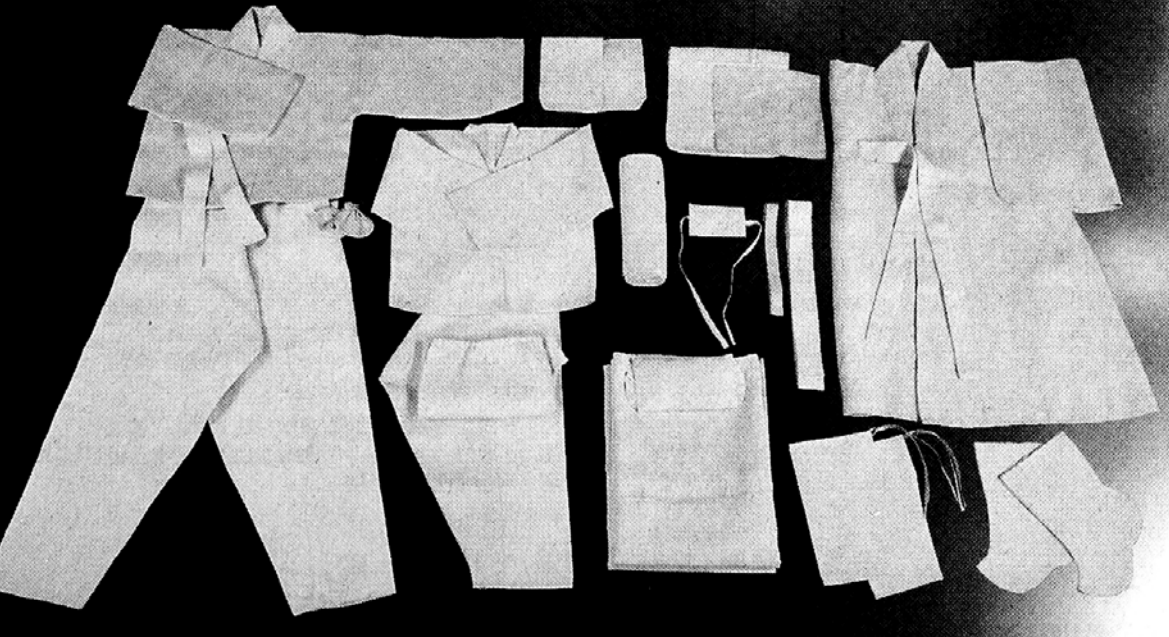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경전은 10권11품으로 돼 있으며, 내용의 절반이상이 《대집경》의 '다라니자재왕보살품'과 상당히 일치한다. 이중 계·정·혜 다라니문의 네가지 영락장엄을 밝히면서, 계에 열 가지, 삼매에 열 가지, 지혜에 열 가지, 다라니에 열 가지의 다름이 있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보살영락장엄품'과 모든 국왕과 대신, 장자, 석제왕인, 대법친왕 등이 이 경을 찬탄하고 지송 옹호할 것을 서약하는 계송이 나오는 '여래축투품'은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이 경은 국가수호의 근거를 밝힌 경전이므로 옛부터 중히 여겨져서 신라시대 명랑법사와 해동국사를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수많은 스님들이 이 경을 호국불교경전으로 많이 활용하였다. 지금 우리는 전쟁에 버금가는 위난에 처하여 있다. 이때에 국난을 이겨내는 가르침을 불교의 경전 가운데에서 찾아, 경제가 무너짐에 의해 철학마저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낙담한 정신상태를 재추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정인의 혼으로 우리삼베로”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bt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십시오!

極樂往生服

“윤달이 든 해에 수의를 짓는 일 이보다 값진 효도는 없습니다”



수의를 윤달이 든 해에 짓는 것입니다. 꼭 윤달이 든 해에 수의를 짓는 것은 윤달은 공달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오늘은 무병장수 내일은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회갑, 진갑이 가까워 온다면 올해 수의를 지어 드리십시오. 일생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값진 효도가 될 것입니다.

불교텔레비전 btn이 효심깊은 불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윤달에 짓는 수의 '극락왕생복'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bt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십시오.



btn 가까이 있는 진리 불교텔레비전 32 문화사업단 우 121-734,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전화:(02)3270-3366 팩스:(02)3270-3498